

# 신학과철학

---

제15호 2009·가을

## 영신수련의 진행 원리와 목표

정 제 천

서강대, 영성신학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 영신수련의 진행 원리와 목표

정 제 천

서강대, 영성신학

1. 들어가는 말
2. 영신수련에 들어가는 열쇠
3. 영신수련의 중심 구조 분석: 반복과 심화의 나선형 구조
4. 세 개의 주요 목상들: 원리와 기초,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
5. 영신수련이 목표로 하는 인간형

### 1. 들어가는 글

영신수련은 피정자와 하느님의 직접적인 만남을 돕는 영적 프로그램이다. 하느님을 만나게 하는 영신수련의 방법은 무엇인가? 성 이나시오 자신의 체험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독특한 체험들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처음에 영적인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는 답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느님께로부터 직접 답을 얻었다. 하느님은 당신을 향해 끊임없이 발돋움하는 영혼에게 몸소 당신 자신을 드러 내시며 선생님이 어린 학생을 다루듯이 자신을 이끌고 가르치셨던 것이다. 이 나시오는 자신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임을 추호도 의심할 수가 없었다. (『자서전』 27)<sup>1)</sup> 영신수련은 이 믿음, 즉 하느님은 당신을 향해 끊임없이

맡돋움하는 영혼에게 몸소 당신 자신을 드러내주신다는 믿음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신수련 지도자는 자신의 이상대로 피정자를 이끌지 말고 “창조주가 피조물과, 그리고 피조물이 그의 창조주 주님과 직접 일하도록 두어야 한다.”(『영신수련』 15)<sup>2)</sup>

이 글은 영신수련이 피정자의 하느님 체험을 돕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하나의 역동적인 흐름을 이루는 유기적인 전체를 이룬다는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영신수련의 구성 요소를 낱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도를 따라 관망하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본고는 영신수련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영신수련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영신수련을 떠받치는 기둥인 세 가지 목상을 고찰한다. 끝으로 영신수련이 목표로 하는 인간형이 무엇인지 성찰하기로 한다.

## 2. 영신수련에 들어가는 열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아무나 영신수련을 하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가? 단연코 그렇지 않다. 영신수련을 통하여 긍정적인 신체험을 한 사람은 영신수련의 위력을 과신할 수가 있다. 누구나 다 영신수련을 하기만 하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일생을 복음화를 위해 바치게 될 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영신수련은 세차기와 같은 것이 아니다. 영신수련은 자유인의 영적 여정을 돕는 프로그램이지 세뇌(brain washing) 작업이 아니다.

인간도 하느님도 자유로운 존재다. 영신수련에 임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전제조건이 있다. 하느님께 대한 관대한 태도 혹은 하느님께 대한 열망이 그것이다. “피정자는 창조주이신 주님께 관대하고 기꺼운 마음으로(generous)<sup>3)</sup>

1) 이나시오, 『로올라의 성 이나시오 자서전』, 최시영 옮김 (서울: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2005), 63.

2) 이나시오, 『영신수련』, 정제천 옮김 (서울: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2008), 16.

3) generous는 ‘관대한, 후한, 너그러운’을 뜻한다. 아랫사람에 대한 윗사람의 태도를 나타내는

영신수련에 임하고, 자신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쓰시도록 자신의 모든 원의와 자유를 주님께 바치는 것이 크게 유익하다.”(『영신수련』 5) 이러한 관대함, 열망이 있는 사람은 영신수련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 이러한 열망은 돈을 주고 살 수 없고, 두 주먹을 불끈 쥐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나시오 성인은 위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회심한 직후의 내적 사정을 이렇게 구술하였다. “책에 재미를 느낀 그는 『그리스도전』과 『성인 열전』에서 요점이 되는 것들을 간추려 베낄 생각을 했다. 그는 열심히 책을 써 내려갔다. 정성을 다해 종이를 다듬고 줄을 반듯이 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붉은 잉크로, 성모님 말씀은 파란 잉크로 써 내려갔다. 그는 글 쓰는 일과 기도에 시간을 반반씩 할애하였다. 그가 가장 위로를 받는 일로는 별빛 찬란한 하늘을 조용히 바라보는 일이었는데, 점점 더 그런 일이 잦아지고 그 시간은 길어져 갔다. 그는 그 결과 우리 주님을 섬기겠다는 커다란 열망을 마음속에 세차게 느끼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되새기며, 완전히 회복하여 길 떠날 수 있는 날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자서전』 11) 이나시오 성인만큼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은, 하느님을 섬기고 싶은 열망을 갖는다면 영신수련을 통해서 누구나 이나시오와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 영신수련은 그만큼 강력한 도구다. 문제는 최초의 씨앗인데, 열망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 간절히 청해서 얻어야 하는 천상 선물이다.

영신수련 피정 동안에 이 선물 없이는 넘지 못하는 몇 번의 고비들이 나온다. 성 이나시오는 영신수련 제1주간을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하느님과 화해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하지만 “제1주간에서 많은 열정과 열망을 보여주지 않은 사람은 더 나아가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한다.<sup>4)</sup> 제2주간에

---

이런 용어를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에 적용하니 다소 어색하다. ‘활달함’이나 ‘호연지기’는 주체의 내적 태도를 가리킬 뿐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는 마음자세는 아니어서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관대하고 기꺼이’라고 하였다. ‘넓은 마음’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하느님께 은총의 폭포수를 청하면서 호리병을 들이대면 안 된다. 하느님께 관대하고 활달한 마음으로 응답한다면 하느님은 한없이 관대하시지만, 하느님께 인색하고 껄뻐한 마음을 가지면 하느님께서도 인색하고 껄뻐한 분처럼 느껴질 것이다(마태 5,38-48 참조).

들어가는 문인 그리스도의 나라 목상을 마무리하는 봉헌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오직 당신께 더 큰 봉사와 찬미가 되도록 온갖 모욕과 비난을 감수하고 모든 정신적, 실제적 가난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본받기를 원하고 바라며 [...]”(『영신수련』 98) 그리스도를 따르되 정신적, 실제적 가난에 이르기까지 따르고 본받기를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어서 제2주간에는 영신수련에 고유한 세 개의 목상이 나온다. ‘두 개의 깃발’<sup>5)</sup>과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sup>6)</sup> 그리고 ‘세 가지 방식의 겸손’<sup>7)</sup>이 그것이다. 이 세 개의 목상은 삼중담화<sup>8)</sup>로 마무리하도록 권하고 있다. 삼중담화는 이냐시오의 맥락에서 대단히 힘든 주제들에서 권고되는 기도이다. 두 개의 깃발에서 부-명예-교만이 아니라, 가난-모욕-겸손을 받아들일도록 기도하고, 세 가지 부류의 사람에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 가지 방식의 겸손에서는 세 번째 방식의 겸손을 갖도

- 
- 4) “제1주간에 (어떤 신분으로 하느님을 섬길지) 자신의 생활양식을 결단하려는 열의와 열망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제2주간 이후를 주지 말고 적어도 한 달이나 두 달을 멈추는 것이 낫겠다.”(『이냐시오 자필 지침서』, 13항): Miguel Lop, *Ejercicios Espirituales y Directorios* (Barcelona: Balmes, 1964), 101.
  - 5) 중세 기사들의 전쟁터를 염두에 둔 개념으로서 삼국지의 전투 상황을 연상해도 된다. 각 진영은 명령을 하달하는 최고 사령관의 깃발에 따라 움직인다. 두 개의 깃발은 세계 역사가 그리스도와 사탄의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음을 표상하는 것이다(『영신수련』 136-147 참조).
  - 6) 나의 노력 없이 거액의 재산이 생겼을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있어서 세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 부류이고, 둘째는 주님 뜻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주님 뜻에는 관심이 없는 부류이며, 셋째는 오직 주님 뜻대로만 처분할 뿐이라는 자세를 견지하는 사심 없는 태도를 취하는 부류이다(『영신수련』 149-157 참조).
  - 7) 겸손한 예수님을 따름에 세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대죄를 결코 범하지 않는 단호함으로 따르는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은 소죄까지도 결코 범하지 않으며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만을 따르는 것이다. 세 번째 차원은 위 두 차원을 포함하며 더 심오한 차원이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 살되 그분이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과 겸손, 업신여김을 즐겨 받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와 가난, 명예와 멸시 천대 중에서 무엇을 택하겠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가난과 겸손을 택하는 것이다(『영신수련』 164-168 참조).
  - 8) 삼중담화는 성모님과 성자, 성부께 은혜를 구하고 청하는 것인데, 영신수련의 중요한 고비에 이 기도를 하도록 권하고 있다(『영신수련』 63, 147, 156, 168, 199). 성 이냐시오 자신도 영적 일기에서 이 기도를 바쳤다. 2월 18일의 기도: San Ignacio de Loyola, “Diario Espiritual”, *Obras de San Ignacio* (Madrid: BAC, 1991), 374.

룩 기도하라고 초대한다. 이는 인간적 의지로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열망이라야 한다. 그래서 영신수련을 시작하는 데에 최소한의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신수련의 비결은 열망에 달려 있다. 마술사가 마술의 비법을 알아야 하듯이 영신수련 지도자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있어야 영신수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열망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이 열망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에게 주어지는 매우 고귀한 선물이다.<sup>9)</sup> 열망은 인격 심층부의 일이고, 하나님과 그 사람의 깊은 대화의 열매다. 사람의 힘으로 열망을 자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최대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이 열망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참 열망인지 거짓 열망인지를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겠는가?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예수회에 입회하려는 지원자에게는 다음의 질문을 한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명예와 명성을 얻고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원하는 만큼 [...]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정반대의 것을 원한다. 즉,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과 존경 때문에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본받고자 모욕과 거짓 증언과 경멸을 당하며 그분과 같은 옷과 제복을 입고 미친 사람으로 취급당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 자기 영혼의 완성에 대단히 유익한 이와 같은 열망들을 품고 있는지 그에게 질문하여야 한다.”(『예수회 회헌』 101)<sup>10)</sup> 그리고 만일 지원자가 “이러한 뜨거운 열망을 느껴 보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열망을 느껴 보려는 열망은 있는지 그에게 물어 보아야 한다.”(102) 다시 말하면 열망의 열망이라도 있어야 한다. 영신수련은 작은 열망의 씨앗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싹 틔우고

---

9) 이것을 모르면 영신수련을 억지로 시키게 된다. 요즈음 사제적의 대품이나 수도회의 종신 서원을 앞두고 의무적으로 한달 피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크게 솟구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개는 영신수련을 하기에 적절한 때이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영신수련을 경험한 선배들의 부정적인 체험에 의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영신수련에 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열망이 없는 상태로 영신수련에 임하는 경우가 있다.

10) 이나시오, 『예수회 회헌과 보충 규범』 (서울: 예수회 한국관구, 2008).

열매 맺도록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영적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열매의 씨앗조차 없는 사람에게 영신수련이 해줄 것은 없다.

### 3. 영신수련의 중심 구조 분석: 반복과 심화의 나선형 구조

이제 영신수련의 중심 구조 분석을 통해서 최초의 열매를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확인하고 내면화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자.

영신수련 역사에서 영신수련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연구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영신수련 지도자를 위한 『지도자 지침서』에서도 날개의 수련이나 각 주간의 내용과 목표, 기대되는 열매를 제시하는 식의 분석적 주석 내지 훈고학적 경향을 띠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 영신수련을 하나의 단일 목적을 지닌 프로그램으로 여기는 관점은 영신수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두고 벌인 논쟁을 계기로 하여 대두하였다.<sup>11)</sup> 우리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알폰소(H. Alfonso)의 견해가 단연 우리의 주목을 끈다.<sup>12)</sup> 그는 영신수련이 반복과 심화라는 나선형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견해에 따라 영신수련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영신수련의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을 비교하는 데에서 시작해보자. 앞서 살펴본 5번이 들어가는 문이다. 여기서는 영신수련 피정자에게 요구되는 태도를 말하고 있다. “주님께 관대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영신수련에 임하고, 자신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쓰시도록 자신의 모든 원의와 자유를 주님께 바치는 것이 좋다.” 이는 네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첫째, 주님께 관대한 마음을 가질 것. 둘째, 관대함의 표지는 자신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셋째, 주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쓰시도록 기도

---

11) 영신수련 해석의 역사와 경향에 대해서는, Gilles Cusson, 「영신수련 해석의 역사 개관: 학파와 경향」, 정제천 옮김, 『신학전망』 130 (2000, 가을), 103-125 참조.

12) V. Malpan, *A Comparative Study of the Bhagavad-Gita and the Spiritual Exercises of Saint Ignatius of Loyola on the Process of the Spiritual Liberation*. (Roma: Editrice Pontificia Universita Gregoriana, 1992), 231-234. 이 논문에서 저자는 H. Alfonso의 주장을 토대로 영신수련 본문을 분석한다.

한다. 넷째,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원의와 자유를 주님께 바친다.

이것을 나가는 문, 즉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230-237)과 비교해 보자. “내가 가진 모든 것들과 또 나 자신까지도 바쳐야 함을 생각한다.” 5번에서 주님께 대한 관대한 마음을 가지도록 요구하였고, 그 표지가 자신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그것을 상기시키는 표현이다. 첫째 요점인 234번에 나오는 기도 “받아주소서, 주님.”은 5번 내용을 풀어서 말하고 있다. “받아주소서, 주님. 저의 모든 자유와 저의 기억과 지성, 저의 모든 의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받아들주소서. 당신이 이것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모두를 돌려드립니다. 모두가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처리주소서. 제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이것으로 저는 족하옵니다.” 자유와 의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처리해 주시라는 청원은 5번의 셋째, 넷째 요소의 반복이다.

둘의 비교 결과는 분명하다.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이 같다. 그러나 이를 두고 동어반복이라고 해서 안 된다. 피정자가 처음에 하느님께 관대한 마음으로 임하여 4주간의 영신수련 과정을 마친 다음에 그 봉헌이 심화되고 구체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봉헌이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된 것이다. 영신수련이 반복과 심화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것이 전체 구조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살펴보자.

### 3.1 영신수련 전체에서 본 나선형 심화 과정

영신수련은 전체적으로 나선형의 심화 발전을 이룬다. 우리는 영신수련 전체에 관계되는 다음 세 가지 사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기도의 맛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2번과 기도하는 몸자세에 대한 76번을 보자. 2번에서 이나시오는 지도자가 피정자에게 묵상이나 관상의 소재를 제시할 때에 의미를 부연하면서 자세히 설명하지 말고 즐거이만 간략하게 제시하라고 한다. 피정자가 추리나 하느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그 의미를 스스로 깨달아야 “더 많은 영적인 맛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영혼을 가

득 채우고 만족시키는 것은 많은 것을 아는 데 있지 않고 어떤 것을 내적으로 느끼고 맛 들이는 데에 있다.”(2) 깊이 궁구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은 큰 기쁨을 준다. 영신수련의 묵상과 관상은 그렇게 해야 한다. 76번은 기도 자세에 대한 설명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 만나면 자세를 바꾸지 말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요점에 머물러 앞으로 나아가려는 조바심을 갖지 말고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머물라.” 내가 원하는 것(id quod volo)은 주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말하면 자신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당황이나 예수님께 대한 내적 인식과 같이 영적인 위안<sup>13)</sup>을 수반하는 은총 체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 요점에 머물라는 말은 피정하는 동안에 바치는 기도의 목표는 다름이 아니라 은총 체험, 즉 성령 체험에 있다는 말이다. 영신수련 기도의 목적지는 정해진 기도의 양을 숙제하듯이 성취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얼마나 ‘느끼고 맛들이느냐’에 있다. 기도의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만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요점들을 따라가다가 마음이 움직이는 곳, 영적 위안과 실망이 느껴지는 곳에 자주 되돌아가서 마침내 예수님을, 하느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다. 영신수련의 기도에서 반복과 심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영신수련 4주간의 밖에 위치해 있으면서 전체의 흐름을 인도하는 영신수련의 전형적인 기도들을 보자. 원리와 기초(23), 그리스도의 나라 묵상(91-99),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230-237)이 그것이다. 원리와 기초는 제1주간 앞에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 묵상은 제2주간의 앞에,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은 제4주년을 마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느님과 세상과 나 자신의 관계를 공통분모로 하는 이 기도들은 영신수련의 진행에 따라 하느님과 세상을 향한 나 자신의 투신과 헌신을 더욱 구체적이고 심화되도록 초대한다. 피정자는 이 기도들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데, 창조하시

13) 영신수련 316번은 영적 위안 혹은 위로에 대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영적 위안이란 매우 그리스도 중심적인 체험으로서 모든 것 안에서 믿음, 희망, 사랑이 커가고 영혼이 창조주 주님 안에서 집착하고 평온해지면서 천상적인 것에 맛 들이게 된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결과로 주어지는 내적인 기쁨의 상태라고 이해된다.

는 성부 하느님과 구원하시는 성자 하느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여 차례로 삼위께 기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영신수련의 중심이 되는 이들 세 개의 묵상 역시 반복과 심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올바로 이해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매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바치는 준비기도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피정자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모든 의향과 내적, 외적 행위가 순전히 하느님께 대한 봉사와 찬미를 지향하도록”(46) 기도를 봉헌하고 자신의 순수한 지향을 다짐한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는”(23) 원리와 기초에 나오는 인간의 창조 목적이다. 그러므로 피정자는 기도를 할 때마다 준비기도를 통해서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를 되새기게 되어 있다.

영신수련의 반복 심화의 구조는 이처럼 전체적인 구도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같은 원리가 세부적인 진행과 매일의 기도 실천에까지 적용되어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 3.2 각 주간의 나선형 심화

4주간의 기도 여정에서도 반복과 심화가 중심적인 흐름을 이룬다. 먼저 제1주간의 묵상 자료들을 보자. 제1주간에는 다섯 개의 묵상 수련을 하도록 되었는데 첫 번째 수련은 사탄과 원조들의 죄, 대죄를 짓고 지옥에 간 영혼들을 묵상하는 것이다. 두 번째 수련은 내 죄를 묵상하는 것이다. 세 번째 수련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수련을 반복하는 것이고, 네 번째 수련은 세 번째 수련을 한 번 더 반복한다. 다섯 번째 수련은 지옥에 대한 묵상으로 앞에서 한 묵상들의 구원사적 결론에 해당한다. 이처럼 제1주간의 묵상 수련은 반복과 심화의 나선형 구도로 이루어져있다.

제2, 제3주간도 다르지 않다. 건강한 피정자는 한 시간 기도를 하루에 다섯 번씩 하도록 되어있는데(128) 매일의 기도 소재는 두 개만 주어진다. 두

개의 기도 소재로 어떻게 다섯 번 기도하는가? 여기에도 반복과 심화가 적용된다. 제2주간 첫째 날의 기도는 제2, 제3 주간 기도의 전형을 이룬다. 첫 번째 관상은 강생에 관한 관상이고(101) 두 번째 관상은 탄생에 관한 것(110)이다. 세 번째 관상은 이 두 관상을 반복하고(118), 네 번째 관상은 이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기도에서는 오감을 활용하면서 앞서 한 관상을 반복한다. 제4주간에도 하루 기도의 횟수를 네 번으로 줄이는 것이 달라질 뿐이고 반복하는 것은 앞서와 같다.(227)

여기서 말하는 반복은 단순 되풀이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반복은 기도 전부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나 실망, 혹은 영적인 느낌을 더 크게 받은 요점들에 유념하며 거기에 머무는 식으로” 한다.(62) 그리고 “반복하되 [...] 피정자가 어떤 깨달음이나 위로나 실망을 느낀 곳에 항상 유념한다.” (118) 영신수련에서 말하는 반복은 주님의 복음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임이다. 그리고 그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내적 인식, 깊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나선형 심화 과정을 이룬다.

여기서 특히 매일의 마지막 수련인 오감 활용의 기도를 주목할 만하다. 오감 활용 기도는 기도 장면과 주님 말씀을 관상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3차원 입체 구성을 통하여 더욱 현장감 있게 바치는 기도다. 상상의 눈으로 복음장면에 들어가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말 함직한 것들을 귀로 듣고, 후각과 미각으로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각으로 만지는 활동을 지향하는 생생한 기도다.(121-125) 이 기도가 가능한 것은 하루 동안 같은 주제와 장면을 반복해온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감활용의 기도 역시 앞선 기도들과 연관 지어서 볼 때 반복 심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자. 영신수련은 반복과 심화의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구성되었다. 이 원리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적용되며 4주간 동안 매일 기도 소재를 배정하는 데에 관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신수련

의 핵심이 되는 기도 역시 동일한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이 같고, 영신수련의 핵심을 이루는 기도의 내용이 같은데 단순 반복이 아니고 심화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은 씨앗과 꽃, 열매의 관계와 같다. 씨앗 속에 장차 피어날 꽃과 열매가 내포되어 있으니 이들은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완전히 같지는 않다. 씨앗이 꽃이나 열매와 단순히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씨앗이 씨앗에 머물지 않고 꽃과 열매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적, 외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내외적 조건이 갖추어져서 씨앗이 발아하고 성장하면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비유를 영신수련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영신수련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5번의 자유와 관대함이 적어도 가능태로서 요청된다. 이 정도의 자유와 관대함을 씨앗으로 지닌 사람이라야 영신수련을 통해 햇빛을 쬐이듯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면서 234번이 말하는 자유와 해방의 현실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유사한 체험을 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타인이 되는 변화가 아니라 자기 속에 심어진 씨앗이 자라서 피어나고 열매 맺는 변화였기에 어떤 면에서 진정한 자기가 되는 변화였다. 그러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제자의 길을 갔던 것이 아닌가! 씨앗이 없었다면 꽃과 열매도 없을 것이다. 반면에 씨앗이 있더라도 만남이 없었으면 꽃과 열매를 피워내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씨앗을 가진 사람을 알아보고 제자로 불렀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심어진 씨앗이 자라는 것을 경이감 속에서 체험하였으리라. 영신수련은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어진 씨앗을 자라게 하고 꽃 피우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는 분은 오직 하느님이시다.

영신수련의 전체 흐름이 심화와 반복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해주는 또 다른 사례들이 있다. 영신수련에 들어가는 문인 원리와 기초(23),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있게 체험토록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91-98) 그리고 영신수련의 마지막 관상인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230-237)이 그것이다. 이들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더욱 구체화되어가는 봉헌과 헌신의 삶의 맥락에서 제시함으로써 심화와 내면화의 길을 보여준다. 이제 영신수련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인 이 관상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4. 세 개의 주요 묵상들: 원리와 기초,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

영신수련에는 전체 흐름과 관계되면서 다른 것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묵상들이 있다. 원리와 기초(23), 그리스도의 나라(91-98),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230-237)은 영신수련 4주간의 구도에서 보면 그 바깥에 위치해 있다.<sup>14)</sup> 그러면서도 영신수련의 진행을 통하여 이들 본문의 내용이 관철되고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이 세 개의 묵상 혹은 관상에는 하느님, 인간, 나, 인생이 모두 포함되어 포괄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들 세 개의 묵상 혹은 관상을 잘 성찰하면 영신수련 과정이 어떻게 심화되어 가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 묵상들을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 4.1 원리와 기초(23)

원리와 기초는 비록 영신수련의 앞머리에 실려 있지만 이나시오의 순례여행 후기에 속하는 이탈리아 시절에 작성되었다.<sup>15)</sup> 마치 논문의 서론이 그러하듯이 원리와 기초는 영신수련 전체를 작성하고 나서 적은 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신수련 전체의 구성과 진행의 원리가 내포되었다.<sup>16)</sup> 그래서 이것을 영신수련의 기본 토대, 즉 기초이자 진행 원리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기서

---

14) 23번 원리와 기초는 제1주간에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45번의 묵상을 ‘첫 번째 수련’이라고 부른다. 91-98번의 그리스도의 나라 묵상은 제2주간에 실려 있다. 그런데 101번 이하 주님의 강생 관상을 ‘첫째 날 첫째 관상’이라고 칭하고 있다. 229번 제4주간 부칙 설명이 제시되어 사실상 제4주간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30-237번의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이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 관상이 영신수련의 통상적인 틀 밖에 있다고 한 것이다.

15) M. R. Jurado, *Obras de San Ignacio de Loyola* (Madrid: BAC 86, 1991), 204

16) Elians Royon, “El Principio y Fundamento, inicio o conclusion?”, *MANRESA* 53(206) (1981), 24.

는 원리와 기초의 본문을 분석적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영신수련 전체의 흐름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과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 4.1.1 본문의 이해

원리와 기초에는 하나님과 나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기본 원리가 담겨져 있다.

##### 나(인간)와 하나님

원리와 기초는 먼저 인간의 창조 목적을 진술함으로써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사람이 창조된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또 이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다.” 영신수련을 순조롭게 시작하려면 이 명제의 맥락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머리로 알아들어서는 안 된다. 이는 과거의 죽은 문자가 아니라, 가슴에 대고 말하는 잠언이자 유언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역사에 비추어 본다면, 모세오경의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신명 6,4-9)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슬픈 약속과 배신을 기록하였지만, 결국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었다. 이 깨달음을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신앙 고백문으로 전수하였다.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의 창조 목적을 진술하는 문장을 이 “쉐마 이스라엘!”의 맥락에서 알아들어야 한다. 모든 천사와 성인 성녀들과 천상 및 지상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비결로 알아들어야 한다. 신약성경에서는 더욱 분명하다. 예수님은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두 계명에 달려 있다고 하셨다.(마태 22,36-40) 또

든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을 망라한 이 두 계명을 하나의 명제로 구성한 것이 원리와 기초의 첫 번째 문장인 인간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창조 목적에 관한 명제를 철학적, 신학적 명제로 이해하지 않고 인간과 하느님에 대한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 고백의 집약으로 알아들을 때에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sup>17)</sup> 그렇게 되면 이 명제는 인간 존재의 과거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이 매순간 이 원리에 의해 창조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 목적에 따라 살도록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sup>18)</sup>

이제 이 명제를 분석적으로 살펴보자. 인간은 아무 뜻 없이 세상에 던져진 것이 아니며, 삶에는 목적이 있다. “영혼을 구한다.”는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온전히 구현되는 참 행복에 이른 상태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저 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규명된다. 인간은 스스로 말미암는 존재가 아니고 타자로부터(ab alio) 온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대부대모(大父大母)이신 하느님을 향할 때에 참 행복과 구원에 이른다. 인간은 스스로 말미암는 존재가 아니기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지만 전능하지는 않다. 어떤 장사도 자신의 몸을 들지 못한다. 나를 들어주는 타인이 필요하다. 이로써 영신수련의 기본 방향이 정해진다. 나를 벗어나서 너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인간의 구원과 행복이 나를 섬기는 데에 있지 않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데에 있음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영신수련은 하느님을 올바르게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길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다. 영신수련은 하느님 없이 인간적 노력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력구제의 수련이 아니다. 태권도나 수영처럼 나를 보신하고 명상을 통하여 깨달음을 획득하는 웰빙 수련이 아니다. 오히려

---

17) 이런 맥락에서 원리와 기초를 생동감 있는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있다. 예컨대, 스페인의 G. Faus는 로마 8,19-39의 맥락에서 원리와 기초가 더 잘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고, 인도의 H. Alfonso는 부르심과 응답의 관계로 보아 탈출 3,1-8(모세의 불떨기 체험); 이사 6,1-8(“누구를 보낼 것인가?”)의 성경이 원리와 기초를 생동감 있게 이해하게 해주는 맥락이라고 주장하였다.

18) Ignacio Iglesias, 「영신수련, 영적 체험의 산실」, 정제천 옮김, 『신학전망』 (2005, 9), 124.

하느님과 우리의 원초적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수련이다. 그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고 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길벗의 관계요 상생의 관계다.(요한 15,15) 그래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섬기는 것이 곧 자기 영혼을 구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리스도교의 전통은 항상 “인간의 행복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이레네오)이라고 믿어왔다.

### 나(인간)와 세상

세상 사물에도 목적이 있다. “이 세상의 다른 사물들이 창조된 것은 사람을 위해서 곧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세상 사물은 인간의 창조 목적에 봉사하는 도구다. 인간이 자연을 착취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다. 세상 만물이 아무리 그럴 듯하게 보여도 인간의 창조 목적이 될 수 없고 도구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람이 먼저다. 현대인들이 추구해마지 않는 돈과 명예는 물론이고, 회심 이전에 바오로가 그랬던 것처럼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 돈과 명예, 율법은 인간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데에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되기도 하고 구원되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물의 주인으로서 그 목적에 따라 세상 사물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면 된다. “그것들이 이 목적에 도움이 되면 그만큼 사용할 것이고, 이 목적에 방해가 되면 그만큼 버려야 한다.” 세상 사물이 인간의 창조 목적에 도움이 되면 그만큼 사용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멀리 하는 것이다.<sup>19)</sup> 세상 사물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물을 ‘놓아둠’으로써 자유를 얻고 내 삶의 주인이 된다.

---

19) 이를 라틴어의 상관구절을 따라 ‘tantum cuantum(~하면 그만큼 더 ~한다)의 원리’라고 부른다.

## 나와 나

나와 세상의 이러한 관계 원리를 지키려면 하느님 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그 자체로 금지되지 않고 우리의 자유 의지에 맡겨져 있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 초연해지도록(indifferent) 힘써야 한다.” 이러한 자유로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초연함이 있어야 인간 창조의 목적과 그 수단인 세상 사물의 관계에 혼동이 없게 된다.<sup>20)</sup> 이는 영신수련 지도자에게 요구한 대로 “어느 한쪽을 편들거나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말고 저울추처럼 중간에 서는”(15) 사심 없는 태도를 말한다. 이는 스토아학파에서 말하는 무관심, 무감동(a-patheia)과 다르다.<sup>21)</sup> 나 자신과 거리 두기가 없다면 ‘좋은 게 좋은 것!’이 되어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섬기게 된다. 이것을 무질서한 애착이라고 한다.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섬기는 무질서로 이끄는 애착들이 있다. 성 이나시오는 그런 근본적인 애착들로 질병과 건강, 가난과 부귀, 불명예와 명예, 단명과 장수에 대한 내적 태도를 든다.

이러한 내적 자유는 ‘~로부터의 자유’이며,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고 움직이며 소통을 도모하는 물과 바람의 이미지에 가깝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 선택을 위한 자유, 즉 ‘~을 위한 자유’가 그것이다. 후자가 없는 자유는 맹목이다. 세상 사물로부터 자유로워진 나는 창조 목적으로 나를 더욱(magis) 이끄는 것을 자유롭게 원하고 선택한다. 인간의 자유에 방향성을 갖게 하는 이 목적이야말로 이나시오 영성에 역

20) 이런 마음의 자유가 indifference인데, 우리는 이를 집착이 없는 상태라 하여 초연함으로, 혹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마음이라 하여 불편심(不偏心)으로 번역한다.

21) 원리와 기초에서 추구하는 마음의 자유는 대상에 대한 감동이나 정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동이나 정서를 느끼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과 그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영신수련의 목표는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하느님 섬김이다. 세상에서 하느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과 단절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세상 사물에 대한 감정을 인식하면서 그 감정과 정서를 통하여 내적 태도를 올바로 갖는 수련을 해야 한다. 이 점이 출세간(出世間)과 즉세간(卽世間) 수련의 본질적인 차이이다.

동성을 부여하는 원리가 된다.<sup>22)</sup> 뜨겁게 타오르는 불의 이미지다.

요약해 보자. 인간은 창조 목적 외에 모든 것으로부터 물처럼 바람처럼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것이 창조 목적에 더 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불처럼 뜨겁게 추구하라는 것이다.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는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물처럼 투명하고 바람처럼 자유롭고 불처럼 뜨겁게 살아야 한다는 인생 기획을 제시하고 있다. 성경의 전통에서 물과 바람과 불은 성령의 이미지들이다.<sup>23)</sup> 결국 영신수련이 추구하는 생활양식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 4.1.2 통합적 특성

원리와 기초는 하느님을 위하여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를 요구한다. 영신수련 전체는 이 자유를 위한 성찰과 은총을 청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의식성찰(=양심성찰)<sup>24)</sup>은 원리와 기초를 생활 속에서 얼마나 관철시키면서 살고 있는가를 성찰하는 것이다. 제1주간의 죄는 원리와 기초가 전복된 상태이다. 성령을 거슬러서 세상 사물에 무질서한 애착을 가진 결과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만연하게 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매 기도에서 바치는 준비 기도(46)는 원리와 기초를 반복하는 것이다.

제2주간의 문턱에 놓인 ‘그리스도의 나라’ 묵상은 제2의 원리와 기초로서 원리와 기초를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화, 개별화하고 갱신한 것이다. 두 개의 것발은 원리와 기초에 충실한 그리스도의 진영과 그에 반발한 진영간의 대립을 보여준다. 세 가지 방식의 겸손은 원리와 기초의 철저한 관철로서 올바른 선택의 기초가 된다.

22) 예수회의 모토인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Ad Majorem Dei Gloriam = AMDG)는 여기서 나왔다. 비교와 선택을 거치지 않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와 다르다.

23) 이병호, 『생명을 주는 힘이신 성령』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9-11.

24) ‘examen de conciencia’는 양심성찰, 의식성찰 어느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스페인어에서는 양심(conscience)과 의식(consciousness)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뉘앙스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도 달라진다. 전자가 윤리적 성찰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의식 흐름의 성찰 혹은 영의 식별에 따른 성찰을 강조한다고 이해된다.

제3, 4주간에는 제2주간의 선택을 한 번 더 견고하게 확인(confirmation)한다. 제3주간에는 제1주간의 악마적 전복이 원리와 기초에 충실하며 아버지께 순종하는 예수님에 의해 뒤바뀐다. 제4주간의 영광은 원리와 기초의 완성, 인간과 우주의 목적이 성취됨을 보여준다. 원리와 기초에서 시작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에서 절정에 이른다.<sup>25)</sup>

요컨대 원리와 기초의 구체적인 목적은 완전한 즉응성(卽應性, availability)의 획득에 있다. 원리와 기초는 영신수련 전체의 지도이며 설계도이다. 그리고 영신수련 전체 여정의 축소판이고 출발점이다.

## 4.2 그리스도의 나라 묵상(91~98)

그리스도의 나라 묵상은 제2주간의 밖에 있으며 이어지는 세 주간의 향도 역할을 수행한다. 제1주관을 마친 피정자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무엇이든 할 용의를 지닌 상태이다. 이런 피정자에게 삶을 위한 프로젝트가 제시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 묵상은 성 이냐시오로 하여금 영신수련을 쓰게 한 원체험이라는 면에서 진정한 영신수련의 출발점이자 중심이다.<sup>26)</sup>

### 4.2.1 본문의 이해

‘귀머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느님의 부르심을 잘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한

25) 원리와 기초를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과 비교해 보면, 원리와 기초에 나타난 요소들과(인간-피조물-하느님)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에 나온 요소들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에서 하느님은 모든 실재의 한 가운데에 있는 중심으로 나타나고 관상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거둬거둬 나타나며 새로운 관상의 각도를 얻게 되어 나선형으로 발전되어 마침내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에서 최대로 심화되고 단순화된다. Ignacio, Iglesias, “La Contemplacion para alcanzar amor en la dinamica de los Ejercicios Espirituales”, *MANRESA* 59(233) (1987), 374-376.

26) 나달은 위 두 묵상이 영신수련의 중심부이고 근본적인 묵상이라고 하였다(M. R. Jurado, *Obras de San Ignacio de Loyola*, 201-202). 아콰비바 총장 시절에 나온 영신수련의 공인지침서는 그리스도의 나라 묵상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생애와 업적의 요약이자 총합이라고 하였다(Miguel Lop, *Ejercicios Espirituales y directorios*, *Balmes* (Barcelona, 1964), 453).

다. 앞 부분은 객관화를 위한 장치이며, 본론인 2부에서는 영신수련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요구하였던 5번의 관대한 자세를 요구한다. 우리는 피정자가 제1주간의 반복과 심화, 즉 나선형 과정을 거친 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98번의 봉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수용하고 그분의 스캔들에 동참하겠다는 무조건적인 열망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이 봉헌문에서 성 바오로와 첫 순교자 스테파노의 헌신적인 태도를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 4.2.2 통합적 특성

그리스도의 나라 묵상과 98번의 봉헌은 원리와 기초(23)의 구현이다. 봉헌기도는 두 개의 깃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놓이려는 열망의 표현이고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며, 세 번째 방식의 겸손에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이다. 이로써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234)의 봉헌기도와 같은 맥락이다.

### 4.3 사랑에 이르기 위한 관상(230-237)

#### 4.3.1 본문의 이해

세상에 파견하는 순간이므로 이제는 영신수련의 비밀을 이야기해야 한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 있다.” 여기서 구하는 은총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들에 대한 내적 인식이다. 내적 인식이라는 표현은 63, 104번과 함께 세 번 나온다. 죄스러움과 용서의 모든 체험이 하느님 체험으로 이해되는 은총이다. 234번에 나오는 “받으소서, 주님” 기도는 전체 영신수련 체험을 집약한 기도이다. 각 요점의 주제는 “선물, 사랑과 권능의 현존, 나를 위해 활동하시고 나에게 헌신하시는 하느님”이다.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이 성령 강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 ‘사랑 관상’은 그 내용이 자연신학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제4주간의 밖에 위치해 있다. 더욱이 ‘우리 주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다룬 312번에서 마친다.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성령강림이 나오지 않고 대신 그 자리에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이 놓여있는데, 내용은 하느님의 “선물과 사랑”(신학대전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제시), 만물에 내주(內住)하시는 하느님(동방교회의 성령론)에 대한 것이다. 이는 성령강림 관상을 이렇게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27)</sup>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은 영신수련의 전체 구조상 종합의 성격을 띤다. 성령강림이 그러했듯이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은 영신수련 전체의 은총을 총합하며 피조자로 하여금 ‘물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살라’고 세상에 파견한다. 데야르 드 샤르탱(Teilhard de Chardin: 1881-1955)의 우주총합의 원리는 여기에 그 원천이 있다.

#### 4.3.2 통합적 특성

제1주간의 위안, 고독에 관한 영들의 식별규칙은 사랑의 현존과 부재이며, 그리스도의 나라 묵상은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다. 제2주간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관상한 것은 그분을 더 잘 알아서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2주간의 관상은 완전한 사랑에 이르기 위한 나선형 진보 과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선택과 관련하여 보면, 사랑이 올바른 선택의 기초이며, 선택은 주님 사랑의 최고 단계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주간의 수난에 참여하는 것은 숭고한 사랑의 실천이며, 제4주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관상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하여 세 가지 주요 묵상들을 하나로 정리해 보면, 영신수련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경륜을 따라 전개됨을 알 수 있다. 자연신학적 분위기를 띠는 원리와 기초는 우리가 창조주 성부와 어떤 관계를

27)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이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서 성령강림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제천, “영신수련과 성령론 -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 이냐시오적 성령 강림” 『신학과 철학』 3권 (서울: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2001), 97-115에서 자세히 논술하고 있다.

뗏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목상은 성자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성자와 뗏어야 할 관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은 성령을 따라 살면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파견하는 출구이다. 영신수련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느님과 벗이 된(요한 15,15) 피정자는 세상 안에서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인으로서 오직 하느님을 섬기며 살아간다.

## 5. 영신수련이 목표로 하는 인간형

끝으로 영신수련이 목표로 하는 인간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영신수련의 전체 흐름에 대한 성찰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영신수련은 자아로부터 해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을 목표로 한다. 영신수련 234번의 “받으소서, 주님” 기도는 해방의 절정을 보여준다. 이는 바오로 사도의 자유, 해방의 고백(로마서 8,35-39)과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자아에서 해방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전적으로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할 때에 가능하다. 그러므로 영신수련에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5.1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해방되고 인격의 통합을 이루는 사람

참 인간이 되는 일,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일은 모두의 소망이자 소명이다.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옳아매는 죄와 무질서한 애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간은 타자를 향하여 나가면서 비로소 자신에게서 벗어난다. 우리에게는 나를 잊게 만드는 타자가 필요하다. 사랑의 엑스타시(ecstasy)를 가능케 하는 진정한 타자는 우리를 내신 사랑의 하느님이다. 그래서 영신수련은 “사람이 창조된 것은 우리 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저 없이 선언한다. 이어지는 또 하나의 놀라운 주장은 “또 이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다.”

인간을 규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인간을 본성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다. 회랍 철학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여기서 이성 대신에 동물과 구별되는 속성들인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등등 온갖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본성에 따라 인간을 정의한다면 그 본성이나 속성들을 더 많이 확보할수록 그만큼 더 인간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식물인간처럼 이성을 발휘하는 데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비록 외적으로 인간의 형상을 갖추고 있지만, 덜 인간이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이런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 진보의 과정, 더욱 인간이 되고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과정은 다름 아니라 지식과 정보, 기술, 과학을 획득하는 과정이 된다. 이런 본성 규정은 신학에도 영향을 미쳐서, 인간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공로를 쌓아서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상급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한다.

이와는 다르게 인간을 인격(persona)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 교리 논쟁의 결실인 이 개념을 현대 심리학 역시 긍정한다. 인간은 정의할 수 없고 각자가 고유한 존재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달된 인격 개념은 고유성과 관계성을 특징으로 한다. 삼위 하느님은 각각 유일무이한 존재이시다(고유성). 그리고 그분들이 누구신지는 ‘성부-성자-성령’의 관계 안에서 알려진다(관계성).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나는 나다. 나의 본성이 ‘나’가 아니다. 오히려 나의 본성은 나의 어떤 것이다.

양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본성은 획득과 축적으로 성장하는 데 반하여 인격은 자기를 바침으로써 성장한다. 인격은 삼위 하느님처럼 관계의 존재로서 자신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자아가 실현된다.<sup>28)</sup> 성자는 자신을 떠나서 성부의 뜻에 따름으로써 아들이 되었고 아들로 완성되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똑똑하고 재능이 많을수록 더욱 어머니다운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만큼 더 어머니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영신수련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

---

28) P. Divarkar, “Transformacion del yo y experiencia espiritual”, *Psicologia y Ejercicios ignacianos*. Eds., Carlos Alemany y Jose Antonio Garcia Monge (Mensajero-Sal Terrae: Bilbao-Santander, 1991), 28.

한 깊은 인식과 그리스도와 맺는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다. 이것이 영신수련의 역동성이 갖는 맛이다.

## 5.2 남을 위한 사람

이나시오는 회심 초기부터 “돕는다, 봉사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영혼들을 돕고자(to help souls) 했다. 영신수련을 적은 것은 자기에게 도움이 된 것들을 적어두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리라는 뜻이었다.(『자서전』 99) 그러면 영신수련이 의도하는 봉사는 어떤 것인가? 예수회의 총장을 역임한 아루페(P. Arrupe: 1907-1991)는 “세상은 삶의 의미의 지평을 제시하고 종합을 이룰 수 있는 이들의 것”이라고 하였다. 영신수련이야말로 삶의 의미와 지평을 탁월하게 제시하는 도구로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en todo amar y servir. 233번) 이끈다. 영신수련의 이런 유토피이는 공상 과학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시작하여 삶 안에서 실현되는 구체적 역사이기에 힘이 있다.

하느님은 각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느님의 뜻은 보편법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활동으로 개별적인 내면성에 표현되며 영향을 미친다. 영신수련은 단지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거나 영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영신수련은 사도적인 전술을 배우는 학교로서 ‘남을 위한 사람’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닮아가는 식별과 선택에까지 이른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인간이 남을 위해 살 때 그 인격이 온전히 실현된다고 설파하였다. “인격의 성숙은 하느님 모상에 따라 주어진 자유의 선물을 온전히 사용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자유의 온전한 실현은 하느님과 인간들에게 자신을 유보 없이 거저 주는 데 있다.”<sup>29)</sup>

---

29) 요한 바오로 2세, 『인간의 구원자』 (서울: 천주교중앙협의회, 1979), 21항.

### 5.3 파견된 사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파견되신 분이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르도록 돕는 영신수련 전체 과정 역시 파견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데에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원리와 기초에서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묵상에서는 이것이 구체화된다. 특히 제2주간 첫째 관상인 그리스도의 강생에서 삼위 하느님께서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결국 성자를 세상에 파견하기로 결심하시는 장면을 관상한다.(106-108) 제2의 그리스도로서 우리도 세상에 파견될 것을 암시하는 이 강생 관상에 이어지는 제2주간의 모든 관상은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이다. 제2주간의 청하는 은혜는 그분을 더 잘 따르기 위하여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주님께 대한 내적 인식을 구하는 것이다.(104) 성령강림으로 사도들이 온 세상에 파견되었듯이 영신수련 피정자도 성령강림인 “사랑에 이르기 위한 관상”으로 세상에 파견된다.

### 5.4 교회의 사람

영신수련은 피정자가 막연히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연장체(延長體)인 교회와 관련이 없다면 그의 항구성을 보장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제1주간에 묵상하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스러움과 그 연대성은 우리를 초보적인 상태로 놔두지 않는다. 악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뭉쳐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섬기는 통로이다. 선교에 관하여 교황께 순명을 약속하는 예수회의 제4서원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 세상의 교회는 전투 중인 교회다.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판단과 다른 교회의 유권적인 명령에 대하여 항상 순명할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영신수련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교회와 함께 하는 정신”(352-370)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에 순명하며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이다. 교회는 인간들의 단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성부의 정배이며, 새로운 가치를 시는 새

세상의 핵이다. 남을 위한 사람인 그리스도의 연장인 교회 역시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하느님의 손이다. 영신수련을 한 사람은 현존하는 교회 안에서 하느님께 일손을 내드려야 한다.

## 참고문헌

### 1. 1차 문헌

- 이나시오. 『로올라의 성 이나시오 자서전』. 최시영 옮김. 서울: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2005.
- \_\_\_\_\_. 『영신수련』. 정제천 옮김. 서울: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2008.
- \_\_\_\_\_. 『예수회 회헌과 보충 규범』. 서울: 예수회 한국관구, 2008.

### 2. 2차 문헌

- 심종혁. 『영신수련의 신학적 해석』. 서울: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2009.
- 이병호. 『생명을 주는 힘이신 성령』.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정제천. 「영신수련과 성령론-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 이나시오적 성령 강림」, 『신학과 철학』 3, 2001.
- 테틀로, 조셉 A. 『사랑의 발걸음』. 서울: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2008.
- Cusson, Gilles. 「영신수련 해석의 역사 개관: 학파와 경향」, 『신학전망』 130 (2000, 가을).
- Divarkar, P. “Transformacion del yo y experiencia espiritual”, *Psicologia y Ejercicios ignacianos*. Eds., Carlos Alemany y Jose Antonio Garcia. MONGE Mensajero-Sal Terrae: Bilbao-Santander, 1991.
- Malpan, V. *A Comparative Study of the Bhagavad-Gita and the Spiritual Exercices of Saint Ignatius of Loyola on the Process of the Spiritual Liberation*. Roma: Editrice Pontificia Universita Gregoriana, 1992.

## 영신수련의 진행 원리와 목표

정 제 천

성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이 1548년 교황의 인가를 받은 이래 많은 이들이 영신수련에 따라 피정을 하였고 수많은 지침서가 나왔고 연구가 행하여졌다. 본고는 그동안 영신수련의 연구에서 부족하였던 관점, 즉 영신수련을 하나의 전체로 이해하는 안목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작성하였다. 영신수련 지도자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도자를 염두에 두고 영신수련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즉 영신수련에 들어가는 문과 진행 원리 그리고 나가는 문을 다루었다. 먼저 영신수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열망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였다. 이어서 영신수련의 원리가 반복과 심화에 있음을 간파한 H. Alfonso의 논지를 소개하고, 영신수련을 떠받치는 원리와 기초, 그리스도의 나라 및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로써 반복 심화의 진행 원리가 전체 구도에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영신수련이 어떤 인간형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제어** : 영신수련, 열망, 원리와 기초,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 삼위일체 하느님, 남을 위한 사람

---

## Abstract

---

### The Dynamic Principle and Goal of the Spiritual Exercises

Chong, Che-Chon

Since the *Spiritual Exercises of Ignatius of Loyola* were approved by the Pope in 1548, many people have experienced the Spiritual Exercises and numberless studies or guideline directories have been published. This article intends to introduce a perspective from which one can see the Spiritual Exercises as a whole. This approach has been scarce in the history of understanding the Spiritual Exercises. I have treated the Exercises as a whole from the standpoint of their directors, as to their beginning, their proceeding or dynamic principle and their conclusion. First, I stress that the retreatant needs to have the desire to love and serve God in order to be able to start the Spiritual Exercises. Second, introducing the interpretation of H. Alfonso on the Spiritual Exercises which rightly sees that its dynamic principle and basic structure lie in 'repetition and deepening', I analyze the contents of the three pillars of the Spiritual Exercises, that is, the Principle and Foundation, the Kingdom of Christ and the Contemplation to Attain Love. I confirm that the Exercises proceeding or dynamic principle of 'repetition and deepening' is being applied in its whole structure. Finally I study the objective pattern of the Spiritual Exercises in light of this kind of inner process.

**Key Words** : Spiritual Exercises, desire, Principle and Foundation, the Kingdom of Christ, Contemplation to Attain Love, the Triune God, person for others

---

논문 접수일: 2009년 9월 30일

논문 수정일: 2009년 11월 8일

논문게재 확정일: 2009년 11월 11일

---